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11월 미 일자리 26만3천개 추가, 실업률 3.7% 유지
- NYT: 미국 중년은 왜 노동 시장에서 빠져 나갈까?

[미국 금융]

- WSJ: 연준 은행 책임자, 은행 자본 기준 강화 시사
- Bloomberg: 미 주식 슬럼프... 투자자들 '연준 피크' 베팅 철회로

[중국 경제]

- WSJ: 중국 솔라 제조업체 미 관세 회피, 상무부 곧 발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Bloomberg: 바이든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 관련 업체들 기대 크지만...
- Bloomberg: EU 관계자, "미국 EV 보조금 충돌로 무역전쟁 하지 말아야"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바이든 "美 IRA 결함 있다" 수정 가능성 첫 언급>>> 영어 원본 첨부
- 연합: IMF 총재 "내년 세계 성장률 2% 밑돌 가능성 커졌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he Economist: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주는 질문들은?
- NYT: 최근 미 젊은 구직자들은 '안정'이 최고
- Bloomberg: 성공한 기업들은 "고객보다 직원이 우선"
- WSJ: 아이들 현금 원치 않는다, "게임 머니로 주시면 안 되나요?"
- CNBC: 실리콘밸리가 원자력 발전에 주목한다, 의미는?
- WSJ: 디즈니, 구조조정 할까...경영진 논란 촉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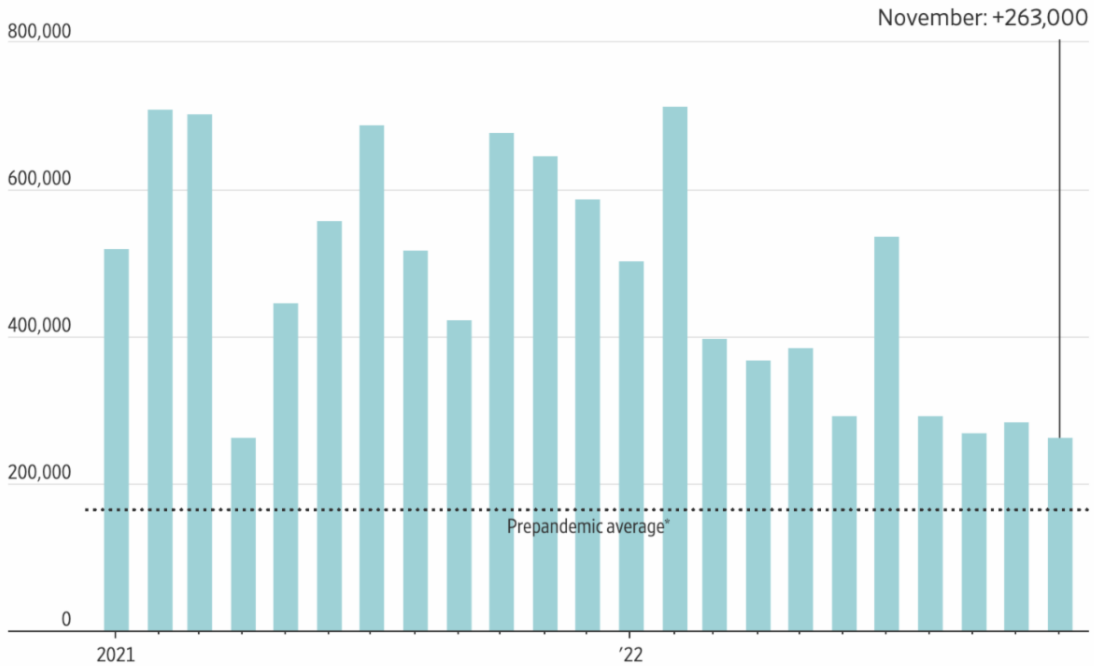
WSJ: U.S. Economy Added 263,000 Jobs in November

11월 미 일자리 26만3천개 추가, 실업률 3.7% 유지

- 미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11월 추가된 일자리는 26만3천개요, 실업률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일자리는 수정 조정치로 28만4천개였으며, 11월에 늘어난 직종의 일자리는 레저, 호텔 등 환대 산업, 헬스케어, 정부직에서 눈에 띈다.
- 반면에 소매업, 운송, 창고업종은 일자리가 줄어, 홀리데이 고용이 약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봉급 관련해서는 11월 시간당 임금이 전년 동월 대

비 5.1% 상승, 임금 상승세가 강한편이다. 하지만 올해 초 급등한 이후엔 변화없이 안정적이다.

Nonfarm payrolls, monthly change



*2019 average.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NYT: Why Are Middle-Aged Men Missing From the Labor Market?
왜 미국 중년은 노동 시장에서 빠져 나갈까?**

- 팬데믹 후에 현재 강한 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35세부터 44세에 이르는 중년 남성들이 팬데믹 때 일자리 손실에서 회복되는데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 비슷한 연령의 여성과 중년보다 젊거나 나이든 연령층의 일자리 회복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35세부터 44세 연령층 남성의 취업률은 10월에 87%로 팬데믹 전에 88.3%보다 낮은 수치다.
- 왜 그럴까? 한가지 이유를 선뜻 들기는 힘들다. 전문가들은 양육과 결혼을 둘러싼 사회 규범의 변화, 기회의 변화,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 위기에 따른 상처 등이, 이들 남성들이 경력을 시작했을 때처럼 비용과 부담을 주었다는 것이다.
-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때 건축과 주택 건설 산업이 위축되면서 남성들이 수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20대와 30대 초인 남성들이 회복되기에는 수 년이 걸렸다. 실업률도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다.
- 여기다 80년대와 90년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범죄기록으로 일을 구하기 힘들고, 핵가족화 하면서 가족 부양자로서의 전통적인

남성역할이 줄어들었다.

NYT 기사

[미국 금융]

WSJ: Fed's Top Banking Regulator Signals Tougher Bank-Capital Rules 연준 은행 책임자, 은행 자본 기준 강화 시사

- 연준의 새로운 은행 책임자는 어제 목요일 시사했다. 대규모 은행 자본 기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완화되었던 금융 요건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 연준의 은행 감독 담당 Michael Barr 부의장은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행사에서 연준이 은행 자본 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인 요구 조건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은행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 강화 때문에 경제 위축, 자본 시장 유동성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Stocks Slump as Traders Boost Fed Wagers on Jobs: Markets Wrap 미 주식 슬럼프... 투자자들 '연준 피크' 베팅 철회로

- 일자리 수치가 늘어나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투자자들이 우려, 주식이 슬럼프를 보이고 있다.
- S&P 500 지수는 이번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연준 조치에 민감한 2년 물 국채 수익률이 4.4%를 상회했다. 달러의 경우는 올해 6월 이후 최저치를 이끈 지난 3일간의 하락세가 멈추었다.
- 현재 금리는 3.75% ~ 4%. 수준인데 연준 관리들은 최종 금리를 당초보다 높은 5.25%로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주식 보다는 채권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ese Solar Manufacturers Dodged U.S. Tariffs, Probe Finds 중국 솔라 제조업체 미 관세 회피, 상무부 곧 발표

- 중국의 주도적인 태양전지 제조업체 4곳이 동남 아시아를 통해 그들 사업의 일부 루트를 바꾸어 미국 관세 부과를 피해갔다는 점을 연방 상무부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발표된 이번 조치로 수입 업체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내 에서 또는 해외 다른 곳에서 소싱을 대체하는 경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부터 이뤄진 이래 솔라 부품 수입이 불확실해지고 미국 내 솔라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 중국 업체 이름은 BYD (H.K.) Co., Canadian Solar International Ltd., Trina Solar Science & Technology (Thailand) Ltd., Vina Solar Technology Co.다.

WSJ 기사

[인플레이 감축법(IRA)]

Bloomberg: Biden's Climate Bill Is a Put Option on Automakers' Big EV Bets

바이든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 관련 업체들 기대 크지만...

-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조치가 시행되면 관련 제조업체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고 이 업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이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 생산 투자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
- GM은 이 법안 통과 전부터 향후 2020년대 중반까지 북미에 1백만대 전기차 제조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 포드사는 전기 배터리 생산을 2026년까지 생산할 경우 70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명암이 있는 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2025년에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1천8백만대나 1천9백만대를 생산하는 반면 판매 댓수는 1천5백만대에 그칠 것이라는 것. 2029년에는 더 힘들어져 생산 3천8백만대에 판매는 2천6백만대에 머물 것이라고 AutoForecast Solutions는 예상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EU Can't Afford Trade War in US Subsidies Clash, Vestager Says

EU 관계자, "미국 EV 보조금 충돌로 무역전쟁 하지 말아야"

- 유럽 경쟁 담당 집행위원(competition chief)인 Margrethe Vestager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일으킬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 면담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조치에

대해 유럽도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미국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 Vestager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법이 한국, 일본, 유럽 등 우방국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보조금 관련해 경쟁을 피하는 것이 좋고, 유럽은 대안을 찾기 위해 미국과 건설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바이든 "美 IRA 결함 있다" 수정 가능성 첫 언급
- 연합: IMF 총재 "내년 세계 성장률 2% 밑돌 가능성 커졌다"

한경 기사 World Trade Online 원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The Economist: The open questions of hybrid working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주는 질문들은?

-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특히 백인 화이트 컬러 직업 패턴에 변화가 일어났다.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정착되었다.
- 하버드대가 3그룹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업무 시간의 23%~40%를 사무실에서 보내는 집단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 하이브리드 방식을 말한다.
- 그러나 새로운 입사자나 젊은 직원의 사무실 근무 시간이 줄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 근무자가 원격 근무때 더 중요한 업무를 쉽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면에 이들에게 충분한 회사 문화를 심어 주는 것도 좋다는 조사도 있다.
- 또한 팀별로 사무실 출근해야 하는 날을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는가도 있다. 그리고 보스는 직접 대면하는 직원을 선호할 수 있기에 보스도 가끔 집에서 일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재택 근무 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일어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The Economist 기사

NYT: It's All That Young Job Seekers Are Asking For: Stability 최근 미 젊은 구직자들은 '안정'이 최고

- 인플레이션, 팬데믹, 연이은 해고 등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 분야를 재조정하며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 Handshak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73%가 최우선 구직 조건을 “안정성(stability)”이라고 답했다. 50% 미만의 사람들만이 유명 브랜드에서 일하는 것을 꼽았다.
- 최근의 미국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메타, 아마존, 트위터의 연이은 해고를 지켜본 젊은이들의 구직 불안은 커졌다. 더이상 꿈의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재정적 안정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 Handshake에 따르면 2023년에 졸업하는 대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전에 원하지 않았던 산업 분야 근무를 고려하고 있으며, 5분의 1은 더 일찍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과 불안정 사이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

NYT 기사

Bloomberg: Forget Customer-First, Successful Businesses Focus on Employees

성공한 기업들은 “고객보다 직원이 우선”

- 오래된 비즈니스 격언인 “고객 우선주의”가 “직원 우선주의”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Patagonia, Airbnb, Shopify와 같은 기업들은 직원 복지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는 이 같은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원의 입사 및 교육, 작업 옵션, 기술 인터페이스와 사무실 설계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는 노동시장의 강세가 고용주들이 기업 문화를 재고하도록 만든 것이지만, 조사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직원들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지원을 받을 때 고객 경험도 개선되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무례한 고객 한 명을 잃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퇴사한 직원의 자리를 교체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Bloomberg 기사

WSJ: Kids Don't Want Money Any More

아이들 현금 원치 않는다, “게임머니로 주시면 안 되나요?”

- 디지털과 함께 자라난 세대의 아이들이 더 이상 현금을 원치 않는다. 대신 “로블록스”의 온라인 게임 화폐로 용돈을 받기 원한다. 이들은 로블록스를 통해 경제 개념을 배운다.
- 게임 산업 역시 이에 적응해 용돈과 비슷한 월 구독료로 게임 속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등 어린이 이용자층의 수익화를 위해 먼저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 아바타를 통해 가상 활동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무료 3D 온라인 세계인 로블록스의 매출은 지난해 19억 달러로, 지난 3년간 6배 증가했다. Forrester Inc.에 따르면 작년 12~17세 어린이의 온라인 소비는 월 평균 92달러로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비디오 게임과 가상 상품에 사용되었다.
- 한편 Chipotle, 아마존, 월마트, 켈로그, 나이키 등의 수많은 기업과 광고주들은 엔터테인먼트를 가장한 마케팅으로 로블록스에서의 게임을 스스로 개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로블록스는 다른 게임 기업과 달리 큰 돈을 들여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WSJ 기사

CNBC: Why Silicon Valley is so hot on nuclear energy and what it means for the industry

실리콘밸리가 원자력 발전에 주목한다, 의미는?

-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기술 허브의 벤처 투자자들이 원자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오랜기간 국가 지원에 의존해왔던 원자력 사업 분야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서 빠른 진전이 예상된다.
- Pitchbook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기후 투자 거래 흐름은 물량 기준으로 214%, 달러 가치 기준으로 1,348% 올랐다. 원자력 분야의 투자는 물량 기준 325%, 달러가치 기준 3,642% 늘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 또한 바이든의 IRA 서명과 EU의 원자력 유지 발표 역시 핵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되었다. 특히 핵 융합 분야의 경우 오래 지속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 하지만 원자력 발전 사업 분야의 지속적인 건설 비용과 기간 연장 문제, 비용 경쟁력 등을 고려했을 때 최근의 증폭된 관심을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CNBC 기사

WSJ: Disney Proposal to Restructure, on McKinsey's Advice, Triggered Uproar From Creative Executives

디즈니, 구조조정 할까...경영진 논란 촉발

- 디즈니 이사회가 Robert Iger로 최고 경영자를 교체한 뒤, 최근 몇 달 동안 주요 지출 결정을 중앙 집중화 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 McKinsey와 협력하고 있다.
- McKinsey는 디즈니의 마케팅 및 홍보 지출 결정을 경영진이 아닌 다른 부서로 옮기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 고용, 통신, 법률 서비스와 관

련된 업무를 통합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최고 콘텐츠 임원진들의 위 기감을 불러오며 내부 논란을 일으킨 것.

- 디즈니의 새 CEO가 McKinsey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 황이다.
- 한편 디즈니는 타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 심화, 경제 악화 가운데 투자자들 로부터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에 스트리밍 사업을 신 규 가입자 확보보다 수익 창출로의 집중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온 상황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글로벌 IB "내년 반도체 부활...한국, 대만 주식 사라"

로이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BoA, UBS, SG, 도이체방크 韓 톱픽"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반도체 부활을 예상하며 한국, 대만의 주식시장 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부터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소시에테제네랄, 도이체방크의 자산관리 DWS까지 한국 증시를 최고(top billing)로 손꼽았다.

골드만은 한국 주식을 내년 "반등 후보" 가운데 최고라며 추락한 원화에 따른 낮 은 밸류에이션을 이러한 전망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회복에 따른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가 내년 달러 기준으로 30%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